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0월 5일 (제76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에펠탑효과

심리학에 에펠탑효과란 말이 있다. 그 의미는 그 어떤 대상의 노출빈도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하여 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이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펠탑을 건립했다. 그때 파리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철거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파리의 예술성을 퇴보시키고, 괴물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자 정부는 20년 후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파리 시민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 흉물과 다름없던 에펠탑을 매일 보고 자주 보니 어느새 정이 든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에펠탑하면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로 파리를 먹여살리고 있으며, 파리의 귀부인이 되었다. 이렇듯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다가도 매일 보고 자주 보니 정이 들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현상을 두고 에펠탑효과라고 한다. 이 에펠탑효과는 미운 정, 개념이다. 미운 정도 정이다. 매일 싸우는 사람도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에펠탑효과를 전도에 응용했으면 한다. 처음에는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그러나 자주, 매일 보고 들으면 어느 날 그것이 친근감 있게 들리고 익숙해진다. 이것이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매일 해야 하는 이유다.

이 에펠탑효과의 최대 수혜자는 광고업체다. 광고를 TV로, 라디오로, 인터넷이나 신문으로 매일 대하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다. 그러니 단판 승부가 아니라 에펠탑효과를 얻을 때까지 꾸준히 전도하자. 반드시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리라 믿는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베네수엘라(Venezuela) 제3의 도시 발렌시아(Valencia)는 목사님의 방문으로 몹시 흥분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도착 첫 일정으로 에스페라(Hespera) 호텔에서 진행된 TV 방송 인터뷰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차베스(Chavez)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빨간 베레모를 쓴 목사님의 모습 자체가 관심거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목사님의 열정에 찬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베르투치(Bertucci) 목사의 마라나타

치지도 말라했던(행4:18)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소탕되는 대역사가 발렌시아를 발작 뒤집어놓았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총명한 기쁨을 찬양으로 마음껏 발산했다. '포데로소 이스라엘(Poderoso Israel)'이라는 능력의 찬양을 시작하며 목사님은 단 아래로 내려가 성도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 예수를 찬양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곁으로 몰려와 입을 모아 찬양하는 모습은 이 날의 압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외치셨다. "돈이 없으니?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 떠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이 집회를 배설했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앞세우고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단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집회비용을 덜 사람도, 호텔 비며 음식 값도 널 사람이 나 타난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 바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난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집회

(Maranatha) 교회에서 진행된 발렌시아 집회는 성령의 대역사로 시작되었다. 목사님은 기대에 찬 눈으로 목사님을 주목하는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선포하며 설교에 앞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 때부터 성령께서 다 하셨다. 처처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령의 대역사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 옛날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

정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발렌시아 집회를 주관한 루이스(Luis) 집사는 당장 집회 진행에 필요한 돈이 없다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더구나 베르투치 목사가 집회에 헌금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역시 집회를 열어 돈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복음 장사꾼의 면모를 보여줄 따름이었다. 쓸쓸하지만 어찌겠나? 목사님은 일행을 먼저 다독이셨다. "이미 전쟁은 터졌고 피할 수 없다. 결코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기쁨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그리고 집회 주관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란다." 목사님의 이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나타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늘 예측불허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히 마귀도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아이들이 단으로 몰려와 함께 찬양했다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15)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살린다

친구는 제2의 자신입니다.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고, 친구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거울은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를 말하는 죽마고우(竹馬故友)요,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인 지기 지우(知己之友)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밀한 벗인 막역지우(莫逆之友) 등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급난지붕(急難之朋)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급난지붕은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잘 나갈 때, 수중에 돈 많을 때 붙는 친구는 많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주식형제(酒食兄弟)라고 합니다.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친구지요. 그러나 이런 친구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해를 당할까 해서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주식형제천개유(酒食兄弟千個有) 급난지붕일개무(急難之朋一個無)라고 했습니다.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이니 아우이니 하는 친구는 천명이나 되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잠19:4).

그럼요,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움에 처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처럼,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처럼, 또한 바울에게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을 서준 것도, 병원비를 대준 것도 자네였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밖에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넌 찾아왔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이 깊도록 심란하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을 거닐며 ‘나는 과연 세상을 하직할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제게는 저를 위해 생명을 더 귀하다는 물을 아끼지 않을 친구, 위기가 왔을 때

저를 위해 희생할 마다하지 않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지로, 동역자로, 그리고 친구로 제 곁에 있습니다. 큰 재산입니다. 이런 친구는 지갑 속의 현금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급난지붕이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맞아야 하고 생각과 뜻이 같으면 나이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담상조(肝膽相照)할 수 있는 친구,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인다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진정한 우정을 말합니다. 정말 어렵 때는 아내나 남편,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담상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란 아낌없이 쓴 소리도 해줄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잠27:6). 충고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왕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진정한 친구였기에 쓴 소리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나를 찰찌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찌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찌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시141:5).

저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친구로 사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탈무드에도 ‘친구를 사귄 때는 한 계단 올라서서 찾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순자의 권학(勸學)’ 편에도 “꾸불꾸불한 썩도 삼발에서 나면 자연히 꼳꼳하게 자라나”고 했고, ‘논어’

는 “친구를 사귄 때는 모름지기 나보다 나은 자여야 하고, 나와 같은 정도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나무꾼 같은 친구를 만나면 아궁이의 장작이 되고 말지만, 목수 같은 친구를 만나면 궁궐의 대들보가 될 수 있고, 커다란 돌덩이도 미장이 같은 친구를 만나면 온돌방의 구들장이 되고 말지만, 예술가 같은 친구를 만나면 성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고철 덩어리도 장색(匠色)을 만나면 예술품으로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세미나 중,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전(前)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그 나라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가난한 나라와만 교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선진국을 친구삼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저는 위에 나열한 친구, 즉 급난지붕의 친구, 간담상조할 수 있는 친구, 과

감히 쓴 소리 할 줄 아는 친구, 나보다 나은 친구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은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급난지붕이며, 더욱이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문경지교(刎頸之交)인 분입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정은 앞뒤가 같은 것이다

이십니다. “아휴, 감히 예수님을 어찌 친구 삼을 수 있느냐?”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분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4).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15:15).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또한 그 분은 우리가 힘들 때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공동번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 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진정한 급난지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잠3:11~12).

이제 당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봅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18:24).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성공은친구를 만들고 역경은친구를 시험한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친구가 있습니까? 급난지붕이 있습니까?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해후한 친구와 저는 제3한강교를 거닐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아내와 자식을 맡아주게. 내가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한다네.” 밀도 끝도 없는 그의 말에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하여 “내가 어떻게 자네 아내와 자식을 맡는단 말인가?” 했더니, 그는 “지난 날, 내 동생 대학입학금을 대준 것도 자네였고, 내가 취업할 때 보증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기회비용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단계별로 조정단계를 거쳐 2031년에 통일이 되었을 경우, 첫 1년간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을 약 230조원으로 추산하며, 상황에 따라 동 금액은 초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처음에는 1조 마르크를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총 2조 마르크(950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통일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자본이 초기단계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례로 구소련은 80년간 시행하던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80년대 중반부터 도입한 시장경쟁제도는 다수의 국영기업체의 도산과 민생파탄은 물론 소련연방의 해체까지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통을 겪은 현재의 러시아는 냉전시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많은 국영기업이 도산되고 극심한 실업률과 빈부격차를 겪었으나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불과 25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홍콩의 L그룹은 80년대 초 중반 시점부터 북한과 교류를 시작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자국 내

에서는 변방 상인으로 취급 받던 동북 3성의 소수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자원과 생필품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획성 있게 조율하면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 초기투입 예산도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개발한 기반을 추가적인 할증료(Premium)의 지불 없이도 후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조공장으로 출발한 S그룹의 경우 초대 회장은 국영 부실 정유회사를 인수하여 그룹을 10대 재벌의 반열에 진입시키는 기반을, 2, 3대 회장은 국영통신사를 인수하여 그룹을 재계 3위의 회사로 등극시켰을 뿐 아니라 창업 이래 고질병과 같았던 상시적 유동성 과부족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국가의 통합은 기업의 합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또한 통합 이후 안정화에 훨씬 더 많은 위험과 비용이 발생되리라 판단되나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은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사심 없이 추진한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성공된 개최에 감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 당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화와 사랑은 동지이며 형제이고로, 사랑으로 모든 난국을 헤쳐가면 반드시 머지않아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임윤석

시멘트 사이에서도 민들레는 핀다

대학교 학부생이었을 때, 캠퍼스에 돌아다니던 중 어떤 분을 만났다. 그 분은 우 리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나에게 함께 성경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다. 그 때의 나는 종교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공부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 분은 고맙게도 나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셨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몇 차례 성경 공부를 하고나서 여름 수련회를 며칠 다녀오자고 하셨다. 수련회에 가면 외박을 해야 하니 부모님께 수련회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 집은 불교집안이므로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완고한 말씀뿐이었다. 그 일이 있던 후, 내 방에 있었던 성경도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 분께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분은 몇 차례 나를 회유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나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며 탄식하셨다(마13:22). 그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뒤에도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했었지만, 나는 예전 일이 기억나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했었다. 내가 교인이라도 아무나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단지 그 마음이 참 고마웠다.

세월은 속절없이 계속 흘렀고, 나에게

세월은 그냥 그저 그렇게 물에 물탄 듯 아무런 감흥도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무채색 삶을 살던 나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래된 인연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새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시없을 그 인연 덕에 나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에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셨던 그 분이 왜 그렇게 말하였고 탄식하였는지 이제는 안다. 돌이켜보면 나의 지난 삶은 목적이 없고, 생기가 없었고, 어느 것이 나의 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 분의 눈에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직도 고마운 그 분의 얼굴이 기억난다.

하지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따스한 봄날, 시멘트 사이에서 민들레가 자라듯이 내 연약한 믿음이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주님에게로 향하는 길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고, 지해도 부족한 새싹이지만, 시험에 들어 뽑히지 않았으면 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싶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6~8)

김성일
cre8tor@naver.com

::심리컬럼::

나 혼자일지라도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간 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35분 동안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창가에서 살인 장면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축소되며 행동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 혹은 ‘사회적 태만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처음으로 주목한 공학자 링겔만은 학생들에게 밧줄을 주고 이를 당기는 힘을 측정하였는데, 개

별적으로 할 때는 평균 85kg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명이 동시에 당길 때는 1인 당 65kg, 14명이 동시에 당길 때는 61kg으로 나타나 집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쏟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집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기여도가 집단수행에 묻혀 드러나지 않아 행동 동기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도 티가 않나’ 하는 마음가짐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개인들의 힘을 순간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이 모으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나 하나쯤

이야’라는 개인주의 태도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깨뜨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한명의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지하철 승강장에 어떤 승객이 발을 헛디뎠을 때, 다른 사람이 가세하고 힘을 합쳐 미는 순간 엄청난 무게의 지하철을 움직이기 시작해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나만이라도’ 하는 의식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박선인
sunin91@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문동병이란 히브리어로 ‘차~라아스’라고 하는데 이는 ‘매, 징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벌의 표징으로 발병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미리암, 게하시, 우시야가 그 경우다(민5:1~4, 12:10, 왕하7:3). 그래서 나병환자들은 진영 밖에 거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뺨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비극적인 생활을 했다.

이 병은 현재는 의학의 힘으로 거의 사라졌다. 반면, 영적 문동병은 만연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마 11:17).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해도 그것을 수용할 줄 모르는 감각이 마비된 자들, 가르침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현대 나병환자이다. 그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들어가야 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잠수하여 나음을 입어야 그 무거운 갑옷, 세상의 짐을 벗을 수 있다. 지금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 진영 밖, 어두움에서 이를 앓아 있을 뿐이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함이 우리의 감각을 잠먹고 있다. 영적 나태함은 바로 악한 마귀의 활동을 왕성케 하여 우리를 삼키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속히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떨어져 나간 살덩이에 살이 나오고, 빈 심령에 예수가 채워진다. 문동병이 나와 무관하다 여기지 말라. 마귀는 호시탐탐 당신에게 무감각균을 전염시켜 당신으로 하여금 낙오케 하려고 한다.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자.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엔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지저스 마니아

열정의 힘

몇 년 전 응급의학과 세미나에 스텝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마지막 연사로 외상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던 한 교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참석자들을 설득했던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교수가 궁금했던 나는 같이 참석한 주변인에게 그가 어떤 분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괴짜 중에 괴짜다’, ‘너무 외상센터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열정이 주변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하지만 얼마 후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위독했을 때 많은 의료진이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때 이승을 비롯해 수술, 완치를 이뤄낸 의사가 바로 그 교수였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니 이런 위기에 순간에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훗날 인터뷰를 통해 그가 남긴 명언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자 적당히 할 줄 모르는 불편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윗은 춤을 추어도 아랫도리가 드러날 정도로 추는 사람이고, 찬양을 해도 악령이 쫓겨 나갈 정도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다. 훗날 아들 솔로몬도 그의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일천번제를 드리며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던가?

또한, 복음 전파에 열정이 충만했던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고후5:13), 이 세상 환난이나 곤고(困苦)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장 7절 말씀, “우리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그 편지가 전달되자 그 다음에는 마가 복음 10장 7~8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표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

니. 위험이나 무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5~39)’고 고백하는 자였기에 매를 맞고 굶주리고 모함을 받아도 그 열정으로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거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12:30)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열정을 가진 자들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니다.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는 응답기만 하면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요10:10).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상희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우리교회 좋은 교회!

병원에 입원중인 권사님의 급한 호출을 받고 단결음에 달려갔더니 옆 침대에 있는 환자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시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친 후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자 조장님과 구역장님이 매일 가서 기도해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드리는 것을 그 병실에 입원중인 이 환자분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랑받는 그 모습이 몹시도 부러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은데요.”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 급하게 저를 호출할 만하지요?

이 새 신자가 퇴원을 한 후에 사업장에 와달라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억울하게 당한 아픔과 손실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조지종을 들은 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마5:39)는 말씀을 전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전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싸울래요.”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새 신자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분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임하면서 눈물이 비 오듯 흐르더니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과 아픔이 송두리째 녹아 버렸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던 새 신자가 예배를 마치고 상대를 먼저 찾아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므로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마7:17). 외적 열매, 내적 열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좋은 성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걸어 다니는 국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근세사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국문학자이자 번역가였으며, 좋은 시와 수필을 많이 남긴 양주동 박사의 일화입니다.

일본 유학시절, 서울에 있는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글 솜씨가 뛰어났으므로 아름다운 문체로 연애편지를 써서 여러 차례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기숙사 사감이 편지를 사전에 읽어보고 연애편지라 전해 주질 않은 것입니다. 고심 끝에 편지에 다른 이야기는 쓰지 않고 성경만 한 구절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4

힘써 힘써 배우고 익히자

우리나라가 세계강국에 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자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실함과 근면성은 노병의 영광처럼 뒷전으로 물러난 듯 하다. 이번 대학 수시원서를 쓰는 동안 가슴 아픈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길을 살아갈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지난 수년을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고민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요했었다.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수시원서 접수기간이 되자 준비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에 맞춰, 자신의 적성 따위는 아랑곳 없이 이 학교 저 학교를 찾아 ‘묻지마 접수’를 시작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평균수명이 백세가 넘는

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선택한 학교와 학과가 그들의 진로와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회의가 들었다. 방임과 자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가방만 들고 학교를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건 자녀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님을 냉철히 자각해야 한다. 정원에서 키우는 식물도 주인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사회에 나아가 자립을 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자녀에게 힘써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시때때로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과 공부뿐 아니라 자녀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가르침을 힘써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경제력이 없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부모들부터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나의 자녀가 참된 독립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 사회에 발판을 내딛을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인지 잊지 말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든든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힘써 배워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아 찾기에 성공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평가받을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